

종합

자치단체·교육청 간부들도 업무추진비 함부로 못쓴다

내년 선거 앞두고 엄격 제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출마할 예정인 지자체와 교육청의 간부들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

또 기부행위 금지 대상자에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선거구 지역에 상주하며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부단체장과 실·국장, 사업소장 등도 선거일 1년 전부터 단체장이나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로부터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

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해 이 같은 답변을 얻었다.

공문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자체의 사무는 단체장에 의해 통할·관리·집행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행위가 단체장의 행위로 추정된다"며 "단체장의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조기관(부단체장과 실·국장) 등의 행위도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로써 단체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지자체의 간부들은 군부대·소방서 격려금 지급 등 그동안 통상적으로 지출해온 업무추진비 집행에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청 간부들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가득찬 장흥댐

지난 7일부터 보름여 간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해 장흥댐 저수율이 1억2천900여만m로 저수율 67.6%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비로 광주·전남지역 주요 상수원과 농업용 댐 등 농업용수 저수율이 평년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황금비’가 된 장마 ... 660억 효과

동북·주암댐 등 만수위로 식수원 해갈 ... 농업용수도 ‘넘실’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 내린 폭우는 가옥 침수 등 집중 피해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동북호·주암호 등 주요 식수원에서는 무려 660억원에 달하는 ‘황금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시와 주암댐 관리단에 따르면 광주시의 상수원인 동북수원지의 저수율이 지난 6월21일 12.1%(1천125만)대 까지 급락했으나, 7월 말부터 보름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지난 16일 만수위(9천200만)를 넘어 현재 수위를 방류하고 있다.

집중 호우로 동북호에 8천75만m의 상수원이 유입됐으며, 이를 상수원으로 계산할 경우 130억원을 훌쩍 넘는 수량이다. 광주시 상수원 취수량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 400일 가량 비가 내리지 않아도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광주시, 나주, 목포 등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원인 주암댐도 2억5천만 가량 상수원이 확보됐으며, 현재 홍수와 댐의 안전을 대비해 수위를 60%대로 조정하고 있다. 주

암댐 관리단은 유입수량 2억5천만을 원수대금으로 계산할 경우 53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암댐 관리단은 현재의 수량을 역면 그대로 고려할 경우 향후 1년 6개월 동안의 가뭄에도 ‘뚜껑 없다’는 입장이다. 삼진강댐과 장흥댐도 현재 저수율이 각각 63.2%와 67.6%를 보이고 있으며, 평립댐과 수어댐 저수율도 100%와 88.3%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남지역 광역상수도 저수율은 집중 폭우 전에 비해 43.6%가

량이 증가한 수치이며, 저수지급 61개를 포함한 지방상수원 평균 저수율은 90%에 달하고 있다.

농업용수도 마찬가지다. 담양호와 장성호, 나주호, 광주호 등 농업용수 4대 댐 저수율 또한 72%에 달해 평년 59%에 비해 많이 증가한 상태다. 저수율이 100%에 가까웠던 광주호의 경우 방류를 통해 수위조절을 했다. 여기에 3천231개의 저수지 등 국내 농업용수 저수율도 82%에 달하고 있어 농업용수 부족 사태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무원 ‘분에 넘치는 결혼’ 자제 하세요

행안부 전 기관에 공문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에게 호화 결혼식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전 행정기관에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문을 통해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경조사 사실을 통지하

거나 이들로부터 경조 금품을 받는 행위를 삼가고, 비난의 소지가 있거나 분에 넘치는 결혼식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공무원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와 업무용 휴대전화 화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지 말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답답한 소리만 골라서 하십니다

‘여수·광양항 항만공사’ 내년 설립

재정·운영 효율적 관리 ... 컨테이너공단 폐지

여수항과 광양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여수·광양항 항만공사’가 설립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이같은 여수·광양항 관리계획을 밝혔다.

여수·광양항은 현재 개발·운영 업무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여수항 및 여천석유부두)과 컨테이너부두공단(광양항 컨테이너부두)으로 나누어져 있어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1990년 설립된 컨테이너부두공단은 부두 개발 자금 조달로 인해 부채가 1조1천838억원이나 누적된 데

다 주요 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기능과 역할은 축소돼 개선이 요구됐다.

여수·광양항 항만공사가 만들어지면 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하는 기능에 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의 항만 운영 기능까지 하게 되며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없어진다.

국토부는 항만공사가 컨테이너공단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한 뒤 정부 출연금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면서 여수항을 통합 관리하면 재정자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호우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 모금 시작

재해구호협회 계좌·ARS 전화 개설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최화래)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27일부터 전국인 성금모금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7일부터 전국 곳곳에 쏟아진 집중 폭우로 13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으며, 3천500여 세대의 주택이 전파·침수돼 8천2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수많은 농경지가 침수돼 잡곡 등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피해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이재민 돕기 성금 모금을 위한 계좌 및 ARS 060-700-1004(한 통화당 2천원) 전화를 27일 개설한다.

은행별 계좌번호는 재해구호협회 홈페이지(www.relie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인터넷 모금도 받는다.

모금기간은 8월 24일까지이며, 모금 관련 문의는 전화 1544-9595 또는 재해구호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

동등해진 한국인

10년 새 과체중으로

남 2.6kg, 여 1.6kg ↑

10년새 한국인의 비만지수가 ‘정상’에서 ‘과체중’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 평균체중이 남자는 2.6kg, 여자는 1.6kg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대대의 예방의학교실 조영태 교수팀과 건강보험공단 연구팀은 1997년부터 2007년 사이 총 6회(2년에 1회)에 걸쳐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406만명 가운데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가진 5천420명(남 4천556명, 여 864명)을 상대로 10년간 비만수준 변화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분석결과를 담은 논문은 대한비만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논문을 보면 남성의 경우 평균체중이 1997년 66kg에서 68.6kg으로 2.6kg 증가했으며, 여성도 97년 54.9kg에 그쳤던 평균체중이 10년만에 56.5kg으로 1.6kg가 늘었다. 증가폭은 남성이 여성보다 컸다.

/연합뉴스

예비군 교육

집에서도 받는다

2016년부터

2016년부터는 집에서 예비군 교육 과목의 일부를 이수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5일 “지난달 확정된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에 따라 예비군 사이버훈련 교육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구 중인 지침에 따르면 2016년부터 구급법과 화생방, 재해재난 교육은 물론 분대 전투와 사격 이론, 간부 부대지휘 절차 등 예비군 기본과목을 집에서 이수하게 된다.

국방부는 현재 동원, 동원미참자, 항방기본, 항방작전, 소집점검 훈련 등으로 이뤄져 있는 예비군 훈련을 2020년부터 동원훈련과 항방훈련으로 단순화하고 입소훈련인 동원훈련 기간을 2박3일에서 4박5일로 늘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완도 명사십리 바닷가 팽매매

팬션부지, 도로점, 관리지역

명리철학 수강생

제5차 한국차박물관 유물 수집 공모

2010년 합격율 대비한 대강좌 = 7·9급 공무원 공직별

2009 DMZ 평화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